

-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

민속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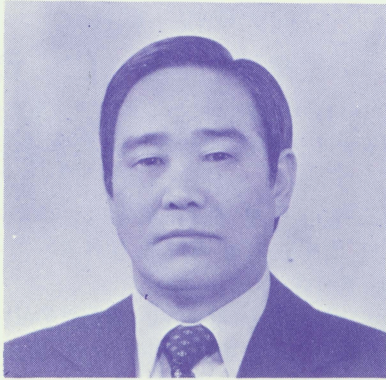
慶信驛馬놀이



1983. 10. 21 ~ 23

경상북도 · 안동시민운동장

인천직할시



仁川直轄市長 金 璫 會

人事의 말씀

菊花香氣 그윽하고 結實의 季節을 맞아 民俗의 祭典인 第24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온 겨레의 祝福 속에 이곳 慶北 安東에서 開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仁川은 그간 開港 100周年의 뜻깊은 해를 맞아 各種行事와 第64回 全國體典을 지난날의 意志와 和合의 정신으로 이고장 正義와 自由를 지킨 옛조상들의 얼을 기리며 새時代의 脚光을 받는 거룩한 先進精神이 胎動하는 가운데 文化體典, 秩序體典, 科學體典의 旗幟아래 仁川의 온갖 底力을 集結시켜 體典史上 일찌기 볼수 없었던 아름답고 알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와같은 잔치속에 이번 仁川直轄市가 선 보이는 「慶信驛馬놀이」는 산도대감 系列에 속하는 놀이와는 전혀 性格이 다른 仁川特有의 것으로서 昨年에 出演한 바 있으나, 작년의 미숙한 곳을 學界의 考證을 받고 더욱 보충한 傳承民俗인 것입니다.

이제 民俗藝術을 통해 傳統文化에 스며있는 끈질긴 意志와 不滅의 倉造力을 기르고 啓發하여 내일의 새로운 民族文化를 再創造하기 위해 온 情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機會가 우리 高장의 民俗藝術의 참된 얼을 공부하고 理解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아낌없는 聲援과 편달을 懇切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考證

仁荷大學校 教授

文學博士 崔 仁 鶴

「慶信 驛馬놀이」考

「驛馬」란 官員이나 外國使臣으로의 公務旅行때 交通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 驛마다 준비해 두는 馬車를 말한다. 驛에는 驛官이 있어서 驛馬 利用者の 指名과 일시를 써 매 季節末에 兵曹에 報告하기로 되어 있으며 職位에 따라 驛馬의 배당도 상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驛馬制度는 오늘날의 交通機關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주된 交通手段이었다. 그러나 이 制度가 사라진 것은 1世紀가 훨씬 넘는다. 그러므로 現 時點에서 이 制度를 직접 목격한 生存者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만 口傳을 통해서만 그 樣相을 겨우 再現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되는 대상은 이러한 驛馬制度에는 반드시 <놀이>가 따랐을 것이라는 確信때문이다. 이러한 確信은 몇년전 仁川에 居住하는 金振樺氏에 의해서 事實이 立證되었다. 즉 慶信마을에 옛날 驛馬놀이가 있었다는 그의 外祖父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옛날에 驛馬놀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리의 생각을 確信으로 굳히는데 동기가 되어 주었다.

仁川直轄市의 의뢰로 몇차례 현재 南區 수산동 관할내에 있는 慶信마을(約15戶)을 들렀지만 古老人 崔 경희, 송길용, 최윤문등 諸氏로부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이 慶信마을에 驛馬가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確認할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驛馬制度 자체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에 <놀이>만이 객리되어 傳承될 까닭이 없고 또 驛馬놀이가 역졸들에게 騎用馬 다루기와 馱馬에 貢물싣기를 다루는 조련방식에서 派生되었으리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일반에게 널리 보급된 <놀이>도 아니라는 점이 傳承에 어떤 限界點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前述한 金振樺氏(現61歲)가 國民學生時節에 現松島유원지 앞에 居住하고 있었던 外祖父인(現在生存해 계시다면 120余歲)로부터 들은 記憶으로서는 옛날에 春秋 누차례 역졸들과 村民들이 합세해서 驛馬놀이를 했었다는 것이었다.

外祖父인 朴秉化氏는 中農이었고 이곳에서 慶信마을까지는 도보로 4 km정도였으니 직접 목격했음이 틀림이 없다. 당시 放學으로 서울에서 外家로 놀러온 外孫子인 金振樺氏에게 이 事實을 들려 주었다. 金振樺氏에 의하면 무척 호기심있게 들었으며 그 당시에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을 테지만 지금 그 내용을 모두 記憶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外祖父父母가 모두 돌아가신 현재 이 이상의 提報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히 목격자가 남긴 事實談 하나만을 가지고 金振樺氏는 이것을 復元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全國民俗競演大會에 仁川直轄市의 出演種目으로서 選定되었음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台詞나 動作에 있어 多少의 虛構性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라져가는 民俗을 復元하여 繼承發展시키려는 現場市民들의 喝求에 비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民俗이란 時代的 變化에 따라 形態나 內容이 달라지는 예가 많다. 특히 祭儀나 <놀이>를 보는 우리의 눈은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의 祖上들이 어떻게 共同体로서의 總和를 이루었는지를 터득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이러한 뜻에서 「慶信驛馬놀이」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우리의 固有民俗演戲를 발굴해서 또 하나의 鄉土文化財를 이룩했다는 차원에서 스스로 自慰하는 것이며 높이 評價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발굴자	김진엽	(인천문화원 부원장)
총지휘	정일황	(국악협회 인천직할시지부 부지부장)
연출	박승인	(연극협회 인천직할시지부 부지부장)
지도	김정순	(국악협회 인천직할시지부 이사)

解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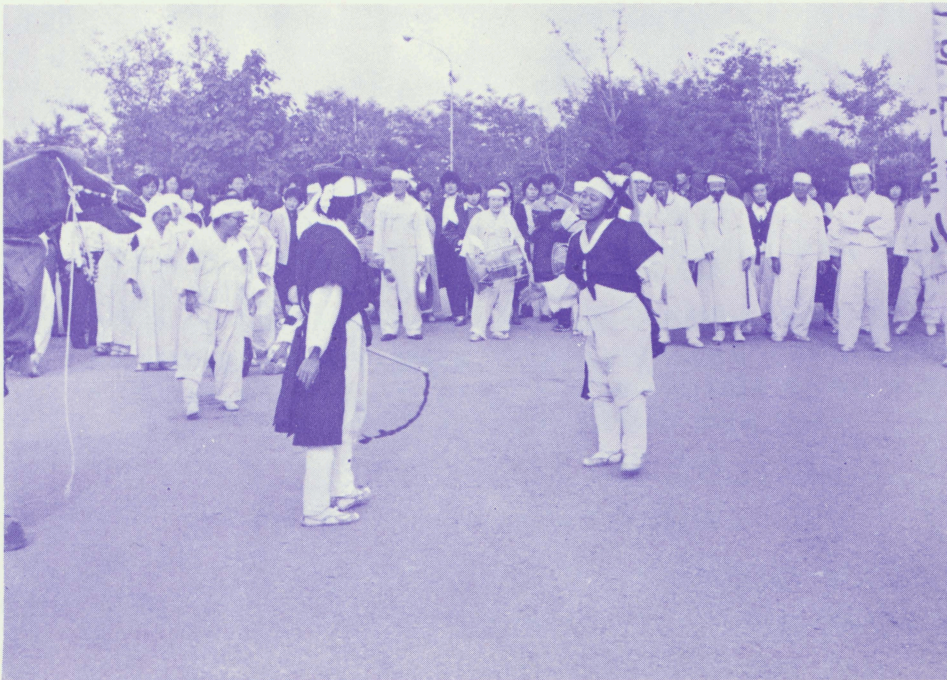
慶信驛馬놀이는 本是 仁川の 主驛이 있었던 驛路 重林道の 屬驛 慶信驛에서 驛卒들에게 騎用馬다루기와 馱馬에 貢物심기를 春秋 二회에 걸쳐 訓練하기 爲하여 實施한 訓練方式에서 派生한 놀이로 실제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確實치 않으나 慶信驛이 朝鮮王朝 初期에 생긴 것으로 보아 朝鮮王朝 中葉初부터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놀이가 慶信마을에 있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理由는 놀이 內容에 貧慾, 貧色을 일삼는 역승과 驛史를 야유하고 빈정대는 대목이 있어 官의 눈을 피해 어쩌다가 놀았기 때문에 제대로 傳해 내려오지 못한 것이라 推測된다.

이 놀이는 驛卒들이 논 舞劇의 一種으로서 춤이 주가 되고 몸짓과 才談이 따르는 舞劇의 形式으로 짜여져 있으나 다른 民俗舞劇이 여러 마당으로 짜여지고 假面을 쓰거나 擬人物을 登場시켜 兩班社會를 야유하고 희롱하지만 이 놀이는 下賤人으로 賤待 받는 驛卒과 그 家族이 驛卒차림과 平素의 차림으로 登場해서 貧慾과 貧色에 찌드러운 兩班階層의 現實을 익살과 웃음 그리고 才談을 통해 야유하고 희롱하는 한편 천덕꾸러기 驛卒들의 울분을 스스로 달래는 內容을 한 마당으로 역은 것과 北部地方의 거친 춤사위나 南部地方의 폭넓을 춤사위에 비해 폭도 과히 넓지 않고 거친 춤의 動作도 아닌 中部地方의 잔잔한 기질을 엿보게 하는 나긋한 춤 가락이 이 놀이의 特色이다.

줄거리

1. 역승과 역리가 출타한 틈을 타서 역졸과 그 가족들이 후미진 곳에 모여 놀이를 벌인다.
2. 무슨 놀이를 놀것인지 서로 의논도 하고 여러놀이를 선보이지만 기용마타기와 타마다루는 놀이가 제일좋다고 선택된다.



3. 흥도할미와 딱정할비가 음흉한 수작으로
역졸의 아낙을 부추겨 역리에게 넘긴다.



4. 역리는 아낙을 금품으로 달래지만 아낙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5. 역승이 등장해서 역리를 벽지 잔역으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여 쫓아보내고 아낙을 차지하려 한다.

6. 아낙은 말 듣는척 하다가 타마마부와 짜고 말을타고 달아나 버린다.

7. 천민을 괴롭히는 탐을 호색한 양반을 쫓아냈으니 마음놓고 한바탕 놀아보자고 한바탕 놀며 뒷풀이를 한다.



출연자 명단

도놀이꾼 박 일 흥
 역 승 최 삼 용
 역 리 김 형 전
 딱정할비 차 부 회
 흥도할미 남 미 영
 아 낙 이 지 연
 역 졸 서 길 원
 역 졸 안 선 균
 애 꾸 심 은 수
 턱까불이 김 국 진
 기용마앞 고 재 순
 기용마뒤 추 선 택
 타 마 앞 박 덕 상
 타 마 뒤 백 성 우

동리사람

이개분 정흥성
 유원근 김부예
 최효순 이정순
 한은숙 김영희
 박일순 차옥여
 흥순여 장경희
 전어진 장귀여
 유석춘 김상여
 김장수 오순례
 김한복 임규익
 박경진 유한익
 박순옥 송연화
 황영태 박우택
 김동수 안명근
 상쇠 박희양
 부쇠 유재웅
 징 진순돌
 징 김호성
 호적 김동준
 장고 이영열
 " 민남순
 북 이계한
 " 조원선

악 사

